2/24/19

설교 제목: 온 유다가 구원을 얻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8 장 1-17

(에 8:1) 그 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절관주] 에 2:7

(에 8:2)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 8:3)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 8:4)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에 8:5)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 8:6)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니

(에 8:7)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에 8:8)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에 8:9) ○그 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백이십칠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에 8:10)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에 8:11)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에 8:12)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절관주] 에 3:13, 에 9:1

(에 8:13)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에 8:14)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에 8:15)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절관주] 잠 28:12, 잠 29:2

(에 8:16)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에 8:17)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절관주] 에 9:17

하만이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려 모르드개 대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처형된 것으로 이 사건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왕의 이름으로 반포한 조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본문은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반포한 조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왕의 조서를 반포함으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처형당한 하만을 대신해서 모르드개가 총리로 임명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 8:1) 그 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에 8:2)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 날'은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푼 날이자 하만이 처형을 당한 날입니다.

그 날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범법자가 소유했던 소유물은 왕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왕은 하만의 집을 임의로 에스더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개와 사촌지간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왕은 모르드개를 불러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빼어 줍니다.
모르드개로 하여금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대궐 문 앞에서 행정을 보던 관리 모르드개가 일약 바사 제국의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루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에스더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반포했던 왕의 조서를 무마시키는 일입니다.
왕은 하만을 처형시키고 모르드개에게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한 것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오로지 왕후 에스더만 관심이 있었지 유다 민족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동족인 유다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반포해 놓은 조서로 인하여 유다 민족이 멸절될 날이 하루 하루 다가옵니다.
에스더는 피가 마릅니다.
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은 멸절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 번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과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담대히 하만이 계획해 놓은 악한 꾀를 제거해 달라고 강청합니다.

(에 8:3)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 8:4)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에 8:5)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 8:6)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니

왕이 자신 앞에 나온 에스더를 보고 금 규를 내밉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만이 쓴 왕의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사실 상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 왕의 조서는 누구라도 번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동족을 살려내야만 했기에 왕 앞에 나아가 간청을 한 것입니다.

왕은 결국 한 묘안을 생각해 냅니다.

이미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서 반포함으로 이전 조서를 무력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왕은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방어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에 8:7)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에 8:8)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하만을 이미 처형한 사실과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준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는 하만에 의해 씌여진 조서를 무마시킬 새로운 조서를 임의대로 쓰라고 말합니다.

왕이 에스더의 간구를 들어 유다 민족을 살릴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조서가 작성됩니다.

(에 8:9) 그 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백이십칠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에 8:10)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하만에 의해 씌여진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된 지 두 달 반쯤 지나 모르드개에 의해 씌여진 새로운 조서가 왕의 반지로 인쳐져서 전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8:11)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에 8:12)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에 8:13)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달월(12 월) 십 삼일 하루 동안 유다 민족에게 자신들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준 것입니다.

처음 조서로 인해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유다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주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공격권까지 주어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유대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됩니다.

(에 8:14)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와는 수산 성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에 8:15)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는수산 성이 어수선하고 모르드개와 유다 백성들은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산 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를 통해 이방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부러워하여 그들도 유다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에 8:16)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에 8:17)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달월 곧 십 이월 십 삼일,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멸망의 날을 구원과 회복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1 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위기를 전화위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뿐 아니라 유다인으로 귀화하였습니다.

이 일은 온 천하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당신이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한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세계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사실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에스라에 의한 제 2 차 포로귀환 사건(B.C. 458 년)과 느헤미야에 의한 제 3 차 포로귀한 사건(B.C. 444 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섭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각오하며 담대히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